

만남

2023년 2월
통권 216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사랑아,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갈 길을
생각하여라.

(개의 수요일, 개의 예식 말씀 / 창세기 3,19 참조)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님의 유언	-----	3
신앙생활 나눔 / 최영숙 데레사	-----	5
소공동체 모임 자료	-----	6
전례와 신앙	-----	9
본당 순례	-----	12
영적 상담	-----	16
성경 속의 사람들	-----	18
축일을 축하합니다	-----	21
본당 전례, 본당 살림살이	-----	22
공동체 소식	-----	23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4
월 중 행사표	-----	25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6
미사안내	-----	27

《교황님의 2월 기도지향》

❖ 본당들을 위하여

본당들이 친교를 중심으로 하여 더욱더 신앙과 형제애 그리고 가장 가난한 이들을 향한 환대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님의 영적 유언

인생의 늦은 시기에 저는 지나온 수십 년을 돌아보면서 가장 먼저 감사할 이유가 얼마나 많은지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온갖 좋은 선물을 베풀어 주는 분이신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느님께서서는 저에게 생명을 주셨고 다양한 혼란의 순간에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제가 미끄러져 넘어질 때마다 언제나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당신 얼굴의 광채를 늘 새롭게 비추어 주셨습니다. 돌이켜 보면, 이 여정에서 어둡고 지친 기간들도 저의 구원을 위한 것이었고 하느님께서서는 바로 그 안에서 저를 잘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보고 깨닫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저를 낳아 주시고 커다란 희생을 치르면서 사랑으로 저에게 훌륭한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셨던 부모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보금자리는 선명한 빛처럼 저의 모든 날을 비추어 줍니다. 아버지의 확고한 신앙은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가지도록 가르쳤고, 저의 학문적 성취들에 언제나 길잡이로서 확실히 자리하였습니다. 어머니의 깊은 신심과 숭고한 선의는 그 어떤 감사를 드려도 모자랄, 제가 물려받은 유산입니다. 누나는 수십 년 동안 아무 사심 없이 애정 어린 배려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형은 명철한 판단과 힘 있는 결단, 그리고 평온한 마음으로 언제나 저에게 길을 닦아 주었습니다. 형이 끊임없이 앞장서 주고 동행해 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올바른 길을 찾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언제나 저의 곁에 많은 남녀 친구들이 있게 해 주시고 제 여정의 모든 단계에 협력자들을 보내 주신 하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게 주신 여러 스승과 제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들 모두를 하느님의 선하심에 맡겨 드립니다. 아울러 바이에른 알프스 산기슭에 있는 저의 아름다운 고향에 대해서도 주님께 감사드리고자 합니다. 언제나 그곳에서 저는 창조주 본연의 광채가 투영되어 드러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의 고향 사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들 안에서 저는 신앙의 아름다움을 늘 새롭게 경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고향 땅이 믿음의 땅으로 건재하기를 빕니다. 사랑하는 고향 분들에게도 청합니다. 믿음이 약해지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끝으로 제 여정의 모든 단계에서, 특히 저에게 제2의 고향이 된 이탈리아와 로마에서 경험할 수 있었던 모든 아름다움에 대하여 하느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떤 식으로든 잘못된 모든 사람에게 마음 깊이 용서를 청합니다.

앞서 고향 분들에게 드렸던 말씀을 이제 교회 안에서 저의 봉사 직무에 맡겨졌던 모든 이에게도 드립니다. 믿음 안에 굳건히 머무르십시오! 혼동하지 마십시오! 종종 과학이 -한편으로는 자연과학이 다른 한편으로는 역사 연구(특히 성서 주석학)가- 가톨릭 신앙에 맞서 반박 불가능한 결과들을 제공하는 듯합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자연과학의 변화를 목격하면서, 오히려 신앙에 맞서는 외견상의 확실성이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 확실성들은 과학이 아니라 겉으로만 과학에 속하는 철학적 해석임을 드러냈습니다. 나아가 자연과학과의 대화 안에서 신앙도 언명할 수 있는 범위의 한계, 곧 신앙의 고유한 특수성을 이해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 특히 성서학의 길을 따른 지가 60년이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자유주의(하르나크, 율리히 등), 실존주의(볼트만 등), 마르크스주의 등 다양한 세대 교체가 잇달아 일어나면서 확고부동해 보였던 가설들이 그저 가설임을 드러내며 붕괴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뒤범벅된 가설들로부터 신앙의 합리성이 어떻게 드러났는지를 보았고 또 새롭게 드러나는 것을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 모든 부족함에도 참으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저는 겸손되이 청합니다. 저의 온갖 죄와 허물에도, 주님께서 저를 영원한 집에 반가이 맞아들여 주실 수 있도록 저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저의 돌봄에 맡겨진 모든 이를 위하여 저는 날마다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2006년 8월 29일
베네딕토 16세 교황

※ 2022년 12월 31일 선종하신 베네딕토 16세 전임 교황님(향년 95세)께서는 제265대 교황으로서 2005년 4월 19일부터 2013년 2월 28일까지 재임하셨습니다. 위 유언은 교황 즉위 1년 후인 2006년에 작성하신 유언입니다.

♥ 침묵의 시간 (최영숙 데레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인간관계에서 보금자리에 돌아오면
침묵이 흐르는 조용한 시간이 눈을 감기고 잠재우려는데
슬프게 보낸 하루가 마음을 울리고 온몸을 아프게 하니
하늘의 소리가 양심의 소리로 영혼을 깨워 고백을 하네!

연은 기쁨과 행복은 피어나는 꽃잎처럼 웃음 짓게 하고
받은 아픔과 불행은 떨어지는 낙엽처럼 울리게 하는데
침묵의 시간에 기쁜 소식인 하느님의 말씀을 듣게 되니
찬미와 감사와 영광으로 구원의 기도를 올리게 된다네!

인생의 희로애락과 사랑의 희로애락을 가슴속에 품고서
말없이 흘러가는 구름 따라 하늘의 침묵을 그려보는데
영혼은 하늘을 나르고 몸은 땅으로 떨어져 누워버리니
하늘은 생명을 위하여 빛을 주고 물을 주며 사랑하시네!

천상의 호흡으로 숨을 쉬고 지상의 기운으로 살고 있는
사랑의 공동체인 이웃과 사랑의 피로 맺어진 가족들이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 포근히 잠자듯 평화로운 세상에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일상으로 감사의 노래 부른다네!

어두운 세상에 등불 밝히시고 예수 그리스도님 오셔서
사악한 인생에 촛불 밝히라며 말씀과 십자가를 주시고
떨어진 신앙은 미사에 성체성혈로 성령님을 모시라며
굳건한 믿음은 그리스도의 빛으로 영원생명 주신다네!

병마로 고통과 전쟁으로 고난당하고 가난에 굶주리며
소외당한 이들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이들이여 오라
악한 세상이 복된 천상으로 무의 죽음이 영원생명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가득하면 우리들의 행복이 넘친다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 (마태 5,13-16)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21번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저희에게 진리의 영을 내려주소서.
- ❖ 저희를 이끌어주시는 성령님! 당신 안에 머무르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마태오 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5 13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나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다시 짜게 할 수 있겠느냐? 아무 쓸모가 없으니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짓밟힐 따름이다.

14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자리 잡은 고을은 감추어질 수 없다.

15 등불은 켜서 함지 속이 아니라 등경 위에 놓는다. 그렇게 하여 집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비춘다.

16 이와 같이 너희의 빛이 사람들 앞을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여라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어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은총을 통해 하느님을 드러내고 사람들이 하느님께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소금과 빛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필수적인 요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며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생명을 경시하는 문화가 팽배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하느님께서 주신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이를 지키고자 하는 일에 수많은 유혹들이 생기며 방해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해 때문에 때때로 우리 자신이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조차 잊어버리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이미 이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기억하며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우리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때 사람들은 우리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알게 될 것이고, 우리와 함께 하느님을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라고 청했으면 좋겠습니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이번 달에 우리 소공동체가 ‘생명의 말씀’을 살기 위해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의논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421번 “나는 세상의 빛입니다”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사순시기 전례와 신앙생활

재의 수요일인 2월 22일을 시작으로 올해도 예수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참회와 보속의 기간인 사순시기가 시작된다. 사순시기는 대림시기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 전체를 경축하는 한 해를 의미하는 전례주년 두 축 중 하나이다. 사순시기 의미와 전례를 충분히 이해하고 삶으로 실천하려는 노력은 개인과 공동체의 신앙 성숙에 필수적이다.

교회의 전례 거행은 단순한 과거 사건의 되살림이나 기억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신비, 구세사적 사건들이 품고 있는 ‘신비를 현재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회 전례는 단 한 번 일어났던 구원의 위대한 업적이 되풀이해서 ‘현재가 되게 하는’ 신비이다.

그래서 전례에 참여하는 신자들은 구세사를 기념할 뿐만 아니라 현재에 다시금 체험하며, 다가올 구원을 미리 맛보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례는 신앙의 핵심이다.

교회의 연중 전례 주기는 절기들(대림, 성탄, 사순, 부활, 연중)과 여러 축일들로 구성된다. 전례 거행의 주기는 하루, 한 주, 그리고 한 해의 리듬을 갖는다.

특별히 교회는 주님의 강생으로부터 그분의 영광과 재림에 대한 기다림에 이르기까지, 구세사의 모든 측면들을 한 해의 주기 안에 배분했고, 그것이 전례주년으로 표현된다. 교회의 한 해는 성탄 준비, 즉 대림시기부터 시작된다. 절기들 가운데 총 34주간을 구성하는 ‘연중시기’ 사이에 대림, 성탄시기와 사순, 부활시기가 놓여 있다.

사순시기 유래와 의미

사순시기는 재의 수요일부터 성목요일 주님의 만찬 저녁 미사 전까지 예수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회개와 기도의 시기이다.

재의 수요일 후 첫 주일을 사순 제1주일로 해 모두 6번의 주일을 지나게 된다. 사순 제6주일은 주님 수난 성지 주일로서, 이때부터 주님의 수난을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성주간이 시작된다. 성목요일 주님 만찬부터 성토요일까지는 ‘파스카 성삼일’로 사순시기와는 구분된다.

이 시기는 무엇보다도 부활을 준비하기 위한 기간이다. 그래서 주님의 수난을 슬퍼하기보다는 부활의 기쁨에 비추어 고통과 죽음을 묵상해야 한다. 고행과

단식 역시 그 자체의 의미보다는 사랑과 나눔의 실천, 수난에 참여해 얻게 될 부활의 영광에 대한 희망과 연관된다.

사순시기 전례

사순시기 전례는 재의 수요일 이마에 재를 받는 예식으로 시작된다. 사순시기 동안 그리스도의 수난에 동참한다는 의미에서 기쁨을 상징하는 대영광송과 알렐루야를 바치지 않고, 사제의 제의도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는 보라색(자색)으로 바꾼다. 아울러 수난을 묵상하는 ‘십자가의 길’ 기도를 자주 바칠 것이 권고된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로 시작되는 마지막 주간은 성주간으로 정해 그리스도의 수난과 파스카 신비를 집중적으로 묵상하는 가장 거룩한 기간으로 보내는데, 사순시기는 성 목요일 주님 만찬 저녁 미사 전까지에 해당한다.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시기 전례의 성격은 크게 두 가지로서, 하나는 세례의 회상과 준비, 또 하나는 참회와 보속의 시기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를 통해 신자들은 부활의 신비, 파스카 신비를 준비한다.

■ 사순시기에 알아야 할 전례와 교리 상식

재의 수요일

사순시기를 시작하는 재의 수요일에는 회개와 보속의 의미로 머리에 재를 얹는 예식을 행한다. 사제는 이때 “사람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것을 생각하십시오”(창세 3,19) 혹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마르 1,15)라면서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자기 죄를 뉘우쳐 영원한 삶을 구하라고 권고한다.

주님 수난 성지 주일

주님 수난 성지 주일에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수난을 묵상하게 된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 예루살렘에 들어서실 때, 군중들은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하고 환호하지만 곧 돌변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라고 외친다. 성대한 입당으로 시작된 전례는 이내 예수님의 처절한 수난 이야기로 이어진다.

단식과 금육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시기에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자주 묵상하고, 탐욕과 이기심에서 벗어나 회개와 보속, 봉사를 권고하면서 재의 수요일과 성 금요일에 단식과 금육을 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신자들은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며 절약한 몫을 자선사업에 바쳐 어려운 이웃과 나누도록 해야 한다.

성주간

주님 수난 성지 주일부터 부활 성야 전 성토요일까지의 일주일을 이른다. 사순시기를 회개와 보속으로 지내온 신자들은 1년 중 가장 거룩하게 지내는 이 한 주간 동안 더 깊이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고 체험한다. 사순시기는 성목요일 주님 만찬 미사 전까지이고, 이후 성금요일과 성토요일로 파스카 성삼일이 구성된다.

십자가의 길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를 지고 갈바리아 산에 이르기까지의 14가지 중요한 장면의 형상을 하나씩 지나면서 주님의 수난과 죽음을 묵상하는 기도이다. 초대 교회 때 순례자들이 실제로 수난의 현장을 순례하며 드렸던 기도에서 유래한다. 19세기 이래 수난 묵상에 가장 좋은 기도로 특별히 사순시기에 널리 행해진다.

판공

한국교회는 교회법에 따라 모든 신자가 1년에 한 번은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순과 대림시기에 의무로 받는 고해성사는 신자로서 쌓은 공로를 헤아려 판별한다는 뜻으로 ‘판공(判功)’ 성사라고도 한다. 부활시기를 앞두고 지켜야 하지만, 제때에 받지 못했을 경우, 1년 중 어느 때라도 고해성사를 받으면 판공을 한 것으로 인정한다.

본당 순례 - ‘만남’을 빼고는 말이 안 되는 50여 년 독일 함부르크한인성당 황광지(카타리나) / ‘가톨릭마산’ 주보 2023년 1월 22일자 게재

주님 성탄 대축일에 함부르크 한인공동체를 찾았다. 성전 제대 앞에는 산타 모자를 쓴 사람들이 노래연습을 하며 성탄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이삼십 명 정도 되어 보이는 남녀 어른 아이 구성원으로 다채로웠다. 흐뭇하게 지켜보던 사람이 ‘요셉마리아회’ 가족이라고 귀띔해 주었다. 이들로 인해, 하나둘 모이기 시작하는 교우들은 성탄미사를 하기 전에 벌써 설렘이 가슴 한가득 찬 듯했다.



예수성심성당의 3시 주일미사

주일에는 한인공동체가 독일 예수성심성당을 빌려 오후 3시에 미사를 봉헌한다. 한국말 미사에 참례하기 위해 먼 거리를 마다 않고 달려온 사람들의 인사가 성전 안팎을 수놓았다. 대축일 미사가 이재혁 안드레아 아벨레니 신부의 정성스런 주례로 거행되었다. 영성체가 끝나고 요셉마리아회 가족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특송으로 교우들 가슴속에 평화와 감동이 전해졌다. 그리고 사제는 산타가 되어 아이들에게 자루에서 꺼낸 선물주머니를 전달하여 기쁨을 나누었다. 교우들은 미사 후 다과를 나누며 성탄을 축하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시간으로 로비를 채웠다.



만남성당의 평일미사와 신심단체 활동

마리엔돔 지역 건물입구에는 성당이라는 작은 간판이 붙어 있다. 2층에는 스무 명 남짓 미사를 할 수 있는 경당과 주방, 회의실 2개와 사제관이 고리처럼 연결된 조출한 구조의 만남성당이 있다. 회의실에서 만난 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남부회장 허채열 크리스티안, 여부회장 신유경 울리아, 전례부장 이순자 마리아, 그리고 여러 번 회장을 역임한 김진호 프란치스코와 최영숙 데레사 부부로부터 50여 년 절절한 나라 사랑과 공동체 사랑을 진지하게 들을 수 있었다.



목요일 저녁 7시 미사에는 <반석의 노래>를 이재혁 신부의 기타반주를 곁들여 불렀다. 마침 파리에서 공부하는 이재호 베드로 신부가 방문하여 미사를 주례했다. 경당에 빼곡한 교우들은 오래된 어른들과 유학생 청년들이 어울려 조화를 이루었다. 미사 후에 참관한 청년 레지오는 단원은 적지만 성모님을 향한 청량한 기도소리가 참으로 우렁찼다. 25년 동안 이어오는 레지오 마리아는 믿음의 샘 꾸리아 산하에 청년 사랑의 모후Pr.과 자비의 모후Pr.과 평화의 모후Pr.이 활동하고 있다.

52년 절절한 사랑

간호사, 광부, 영사관, 기타 등등의 일자리로 고국을 떠나 함부르크에 살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와 노력이 우여곡절 끝에 마산교구 김차규 신부와 닿아 1971년 9월 17일 한인공동체를 설립하게 되었다. 2대 구병진 신부 때 매우 왕성했는데, 그 후에는 독일·서울대교구·광주대교구에서 맡았다. 2002년 다시 마산교구에서 11대 이제민 신부, 12대 서정범 신부, 13대 최태식 신부, 14대 최종태 신부, 15대 박철현 신부가 사목했다.

소중한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 누구랄 것 없이 몇 차례씩 회장직을 짊어지고, 다른 소임도 기꺼이 맡으면서 50여 년 세월이 흘렀다. 청춘을 불사른 지난한 세월 같지만, 사랑으로 이어온 시간이었다. 여기서 세례 받고 결혼도 했다는 최영숙은 어떤 분열도 우리의 미사를 통해서 용해시킬 수 있는 것에 감사하다 했다. 무신론자였던 김진호는 부인 따라 입교하여 완전히 주님의 포로가 되었고, 자나 깨나 이 공동체의 안녕에 노심초사다. 30여 년 전 개신교에서 개종했다는 이순자는 우리말 미사가 얼마나 좋은지, 열악한 환경에도 사제가 계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벅찬 감정으로 말했다. 허재열은 청소년 때 교리공부를 하고 미루었던 세례를 여기서 받아 성가정을 이룬 것이 큰 기쁨이라고 했다. 한말조는 애태우는 교섭 끝에 함부르크의 첫미사를 수녀원 경당에서 바쳤을 때 그 감동을 고스란히 전했다.

그래서 그들은 노년이 된 자신들을 돌아보며 세대교체에 대한 고뇌가 크다. 그러니 신유경을 바라보면 대견하고 고맙다. 독일로 유학 와서, 10년 전에 한인성당의 구성원이 된 신유경은 요셉마리아회에서 활동하다 이번에 사목회 부회장이 된 차세대를 이을 청년일꾼이다.



이재혁 신부는 지난해 7월에 부임하여 사목위원들의 도움을 받으며 차근차근 한인공동체와 독일 문화를 파악하는 중이다. 본당과 더불어 지방공동체 브레멘, 하노버, 오스나부르크에 매월 1회 그리고 노르웨이는 일 년에 2회 방문한다. 공동체의 청년활동에 주목하며 결혼하여 자녀가 있는 청년들을 ‘요셉마리아회’로 구성하고, 다른 청년들은 직장인과 학생으로 구분하여 소그룹으로 나누어 결속력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2021년 『만남50』 발간

한인공동체 설립 50주년을 맞아 1세대들은 은혜로운 만남을 기록했다. 청춘에서 노년에 이르기까지 긴 여정을 소중히 정리하고 다음 큰잔치를 할

수도 없는 안타까움이 있었지만, 본당뿐 아니라 4개 지방공동체가 한마음으로 기도를 봉헌했다. 그들이 감싸고 거두어 왔던 공동체의 역사를 한 권의 책으로 묶고 설립 50주년 기념미사를 바치는 그날은 눈물바다가 되어버렸다.

현재 함부르크에는 약 3천여 명의 교민이 있고, 교우는 380명 정도이다. 주일미사에 100~150명가량 나오던 수가 거리두기로 60~80명으로 줄어 걱정이었다. 그나마 이번 성탄미사에 130명이 모여 무척 고무적이었고, “주님 감사합니다!”라고 좋아서 외쳤다.

예수성심을 주보성인으로 모신 한인공동체는 성령 강림 대축일을 본당의 날로 하여 기리고 있다. 연령회, 주일학교, 여성봉사회, 구역별 담당자들도 저마다 맡은 책임을 힘껏 보태며 이 공동체를 가꾸고 있다. 이재혁 신부는 월보 <만남>을 알차게 편집하여, 공동체의 동향을 공유하고 영성생활을 키우는 글도 게재하여 결속을 다지려고 한다. 사목회에서는 홈페이지를 잘 관리하여, 매번 미사나 행사에 참석하지 못하는 교우들에게 끈끈한 ‘만남’을 나누려고 한다.



질문

Q. 제 미래는 하나님께서 미리 결정하신 건가요? 하나님께서는 저의 미래를 모두 결정해 놓으셨나요? 성당에서 그런 말을 종종 듣곤 합니다. 그렇다면 제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 제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를 해도 소용없는 것인가요? 하지만, 원하는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하는 모양이 될까봐 두렵고, 청원기도를 드리면 하나님의 뜻을 믿지 못하고 또 거스르는 것이 될까 두렵습니다.

답변 - 조명연 신부님(인천교구)

A. 하나님 예정 사상은 ‘구원’ 의미 - 주어진 바 인정하고 최선을 다해야

하나님의 예정 사상은 세상 모든 것의 기원이 하나님께 있으며,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는 신앙을 반영해 줍니다. 그러한 신앙의 눈으로 본다면, 현재의 삶마저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은, 하나님의 선택 위에서 이루어진 일로만 볼 수 있지요. 이 문제에 대해 아우구스티노 성인께서는 하나님의 예정 사상을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모든 의지적 결정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선행하고, 인간은 그 은총 안에서만 자유롭다는 사실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인간 구원의 선행 조건인 셈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자유 의지와 책임은 간과되어도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우리들은 자유 의지와 책임을 통해서 구원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행하는 모든 선행은 나의 구원을 위해 예정되어 있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최선을 다하는 가장 올바른 모습입니다.

‘오레 부르’라는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가 어느 날 파리에서 가진 연주회 때의 일화가 생각납니다.

이날 연주회는 그에게 너무도 중요하고 기다렸던 연주회였습니다. 그런데 연주회 중 그가 켜고 있던 바이올린 현 하나가 덜컥 끊어져 버렸습니다.

연주회를 망칠 위기였지만, 그는 포기하거나 불안한 기색 없이 나머지 세 개의 현으로 최선을 다해 연주를 마쳤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하는 부르의 모습에 관객들은 말할 수 없이 큰 감동을 받았지요.

우리의 삶도 이러한 것이 아닐까요? 부족한 것을 인정하고 그 부족함 위에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자신의 결점이나 부족함을 내세워서 쉽게 포기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차피 주어진 인생이라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결함이 있으면 결함이 있는 대로 그것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삶입니다.



♥ 성경 속의 사람들 - 다윗 4 (이용권 안드레아 신부님)

사무엘기가 전하는 다윗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비파를 연주하는 미소년, 골리앗을 때려잡는 용감한 목동, 싸움터의 맨 앞에서 싸우는 장수, 자신의 억울함을 눈물로 호소하는 비참한 이, 부하들을 이끌고 약탈을 하며 살아가는 두목, 주님의 궤 앞에서 춤을 추는 열정의 신앙인, 백성을 다스리는 임금, 뻔뻔한 죄인,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고 뉘우치며 회개하는 인간, 긍정적인 면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면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사무엘기에는 왕정에 대한 부정적 비판의 입장과 긍정적인 입장 두 가지가 있습니다. 다윗에 대한 평가들도 이러한 입장에 따라 여러 모습을 보입니다. 부정적인 입장에서 볼 때, 왕정은 임금이신 주님의 통치를 반대하는 것입니다(1사무 8,6-8; 10,18.19). 임금의 권한을 말하는 사무엘 8장에 따르면 임금은 자작농들의 수입을 빼앗아가는 존재일 뿐입니다. 사무엘이 판관으로서 필리스티아인들을 크게 물리치는 장면(1사무 7,2-17)도 주님의 영이 함께 하는 판관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임금이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우리야의 아내와 사통한 것과 우리야를 죽게 했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전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임금은 해악을 끼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입장은 솔로몬의 즉위와 관련된 이야기(1열왕 1,11-53)에도 자리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왕정에 대해 호의적인 입장에서 볼 때, 임금은 하느님께서 선택하시고 세우신 이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임금으로 세웠거나,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비(하느님의 선택)를 통해 그가 뽑혔다는 이야기(1사무 10,17-24), 그에게 부정적이었던 이들이 야베스 구출 사건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그의 즉위를 추진하는 모습(11,1-15) 등은 사울을 임금으로 세우는 과정이 주님의 뜻(1사무 9,16.17; 10,22; 11,6.7)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이는 다윗에게서도 반복됩니다. 다윗은 주님이 선택한 임금(16,12)이며, ‘주님의 영이 줄곧 그에게 머무른 이’(16,13)입니다. 그는 비파로 악령을 물리치기도 했습니다(16,14-23; 18,10). 다윗은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사울을 ‘주님의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이유로 살려줍니다(1사무 24장, 26장). 무리를 형성한 다윗이 약탈을 하며 살아가는 산적 두목 같이 되었을 때도, 이를

긍정적으로 묘사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을 핍박하던 필리스티아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약탈함으로써 이스라엘을 구했다는 것입니다(23,1-5; 30,1-31). 다윗이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탄의 아들인 므피보셋에게 호의를 베풀었거나(2사무 9장), 압살롬의 반란으로 달아나던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내버려두었다(2사무 16,5-14)는 이야기들은 그의 관용과 주님의 뜻을 찾고 따르는 충실함(2사무 15,25-26)을 드러나게 합니다.

이러한 입장들은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습니다. 임금들이 다스리던 시절에는 임금이 하느님의 선택을 받은 자라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임금에게 정당성을 부여했습니다. 하지만 나라가 망하고 바빌론으로 유배를 갔을 때, 새로운 입장이 나타났습니다. 임금들이 제대로 하느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땅마저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 있던 이들은 왕정에 대해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배가 끝나고 돌아온 이들은 새로운 희망을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다윗과 같은 임금이 올 것이며 그때에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새롭게 해주실 것이라는 바램을 키워갔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변천 속에서 과거에 대한 평가와 미래의 희망, 두 가지가 함께 발전하면서 이 긍정과 부정 두 입장이 함께 전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후대에 이스라엘 역사를 새롭게 정리한 역대기는 다윗의 부정행위와 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습니다. 1역대 16,37-42; 23,1-26,28은 다윗이 성전의 직무와 직제를 편성했다고 하고, 1역대 28,11-18은 성전의 기본 설계도 그의 작업이라고 하며, 성전이 비록 솔로몬에 의해 지어졌지만, 그 모든 기본은 다윗의 업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전의 토대를 만든 다윗은 위대한 임금이라는 생각에서 그에 대한 부정적인 것은 삭제해 버린 듯합니다.

유다 전통은 다윗을 시편의 저자라고 합니다. 시편 3-41; 51-72; 101-103; 108-110; 138-145는 머리말에 ‘다윗’의 이름을 달고 있고, 이 시편들의 저자가 다윗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몇몇 시편들은 다윗이 하느님의 자비와 구원을 청하며 바친 기도라며 구체적인 상황까지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우리가 연도로 바치는 시편 51편(하느님, 자비하시니)은 머리글에 “그가 밧 세바와 정을 통한 뒤 예언자 나탄이 그를 찾아왔을 때”(51,1)라 하고, 63편(하느님, 당신을 찾습니다)은 “그가 유다 광야에 있을 때”(63,1)라며 그 상황을 설명합니다.

2사무 23,1은 ‘이스라엘의 노래들을 지은 이’라 하고, 2사무 1,17.19-27; 3,33-34는 사울과 요나탄, 아브네르의 죽음 앞에서 다윗이 애가를 지어 불렀다고 합니다. 1사무 16,16-23; 18,10는 비파 연주가로 소개하고, 느헤 12,36; 아모 6,5는 악기 발명가라고 하며 그가 음악에 뛰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역대 15-16; 23,5; 에즈 3,10는 성전 전례를 체계적으로 자리 잡게 한 이라고 추켜세웁니다.

다양한 재능을 지닌 뛰어난 이, 다윗, 그의 생애는 널뛰기하듯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다시 깊은 구렁까지 떨어졌다가 올라오기까지 그 굴곡만큼 다채로웠습니다. 그러한 삶의 과정은 그의 혈통이나 배경이 좋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선택, 곧 주님의 은총(카리스마)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이 주님의 선택은 그의 잘잘못에 따라 이어지거나 거두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 질책의 말이 주어지지만, 주님의 선택은 언제나 변함없이 그에게 머물렀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선택은 단 한 번이지만 영원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선택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무상의 선물, 은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편 23장)
/ 지더 쉼더 신부님 성화

❖ 2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3일	안스카	이경규	16일	율리안나	안지영
3일	블라시아	이희자	18일	마리안나	한말조
5일	아가타	문경영 정순화	24일	마티아스	이도영
7일	리차드	박춘실 Groensel	26일	이사벨	이다운
10일	스콜라스티카	조영희			

❖ 2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2일	요안나	이계선(H)	9일	알렉산더	문지훈(H)
4일	요안나	이순자(H)	10일	스콜라스티카	이정자(H) 오윤숙(H)
5일	아가타	허운선(O) 정금선(B)	16일	율리안나	송윤아(H) 이경의(H)

❖ 2월 성가번호 ❖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5일	29	513	156	34
12일	434	332	163	437
19일	25	215	170	2
26일	118	216	182	122

❖ 2월 전례 봉사 ❖

	독 서	제 병 봉 헌	해 설	복 사	커피 봉사
5일	김진호(프란치스코) 최영숙(데레사)	이영원(베드로) 김정옥(크리스티나)	박종래 (바오로)	박노아 (노아)	요셉 마리아
12일	강신행(토마스) 이순자(마리아)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세실리아)	박성아 (베로니카)		1구역
19일 (청년)	학생청년부	이태헌(루카) 김지희(루치아)	최승진 (바오로)		2구역
26일	김경열(필립보) 김점선(실비아)	허길조(안드레아) 허영자(가밀라)	최승진 (바오로)		3구역

♥ 1월의 헌납금 납부자 명단입니다(협조에 감사드립니다)

✿ 자진헌납금(1월 22일 기준)

강신행, 이종하, 신유경, 김전선

✿ 계좌 입금(1월 22일 기준)

백정선, 김유석, 김원자, 송문규, 정정숙, 이명원, 허길조, 김치수, 허선애

♣ 본당의 살림살이를 위해 기쁜 마음으로 봉헌해 주신 교우들께 감사드립니다.
12월 31일 월말 경상비 잔액은 20.148,04유로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2월 2일(목)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교회의 전통에 따라 이날, 일 년 동안 사용할 초를 축복합니다. 19시에 만남 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하고 초 축복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2. 2월 22일 수요일은 사순시기의 시작인 재의 수요일입니다. 10시 만남성당에서 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 중에 재를 머리에 얹는 예식이 진행됩니다.
3. 연령회 월례회가 매월 넷째 수요일 오전 11시로 변경됩니다.
2월 22일 수요일 11시입니다.

※ 새로운 자진 헌납금 계좌에 대해서

자진 헌납금 증명서(스펜덴 증명서) 서류 확인을 간소하기 위하여 함부르크 교구에서 2022년 7월 1일부터 모든 교우분들이 계좌로 자진 헌납금을 송금해 주시기를 지시하였습니다. 자진 헌납금 수입과 그 외 수입금을 구분하기 위하여 스펜덴 증명서를 교구 계좌로 송금을 해 주시는데, 수입금 관리는 우리 공동체에서 계속 합니다. 현재 공동체 계좌도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교구 새 계좌 번호는 아래와 같습니다.

Spendenkonto des Erzbistums Hamburg

Bankinstitut: DKM Darlehnskasse Münster eG

IBAN: DE37400602650000005151

BIC: GENODEM1DKM

StichWort: Spende Koreanische Mission

앞으로 공동체 자진 헌납금은 위 계좌로 송금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StichWort: Spende Koreanische Mission을 꼭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새 계좌로 자진 헌납금을 송금하신 분들은

송금 후 공동체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안나)에게 송금하신 정보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지방공동체 소식

1. 2월 4일(토) 브레멘 공동체 미사는 1월 28일(토)로 변경되었습니다.

사 목 협 의 회		매월 넷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남부회장	허채열(크리스티안)
				여부회장	신유경(율리아)
				전례부장	이순자(마리아)
				총무	박종래(바오로)
주 일 학 교			만남성당	교감	최영자(파울라)
연 령 회		매월 넷째 수요일 11시00분	만남성당	회장	정정숙(아나벨)
예 비 자 교 리		통신교리 신청자	만남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 지 오 마 리 애	믿음의 샘 Cu.	매월 둘째 화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김영희(클라우디아)
	자비의 모후 Pr.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권지연(안드레아)
	평화의 모후 Pr.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사랑의 모후 Pr. (청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이정훈(요나스)
구 역		1구역	반장		
			총무	김매자(베로니카)	
		2구역	반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반장	강순행(마르가리타)	
			총무	김원자(막달레나)	
		4구역	반장	권지연(안드레아)	
			총무	이순자(마리아)	
학생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 17시30분 만남성당	회장		
			총무		
직장인 청년회		매월 셋째 주일 17시30분 만남성당	회장	최승진(바오로)	
			총무	이태헌(루카)	
요셉, 마리아회		매월 셋째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회장	조현영(로사리아)	
			총무	이정은(프란치스카)	

2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일	단체 행사	비고
1	수			
2	목	주님 봉헌 축일(축성 생활의 날)	초 축복	
3	금			
4	토			
5	일	연중 제5주일	구역 봉사자 회의	
6	월			
7	화			
8	수			
9	목			
10	금	성녀 스콜라스티카 동정 기념일		
11	토	세계 병자의 날		
12	일	연중 제6주일	직장청년부 기도 모임	오스나브뤼크
13	월			
14	화	성 치릴로 수도자와 성 메토디오 주교 기념일	꾸리아	
15	수			
16	목			
17	금			
18	토			
19	일	연중 제7주일	요셉,마리아회 모임 / 학생청년부 기도 모임	하노버 공동체
20	월			
21	화			
22	수	재의 수요일	연령회 월례회 11시	
23	목	성 폴리카르포 주교 순교자 기념일		
24	금			
25	토			
26	일	사순 제1주일	사목회	
27	월			
28	화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이재혁 안드레아 아벨리니 (Jaehyuk Andreas Lee)
사목회장 한말조 마리아나 ☎ : 0157 7021 0466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hmammam@gmail.com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이 재 혁 안드레아 hhmammam@gmail.com
본당 신부님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조영실(마리 세실리아), Tel : 042 135 6539

H.P : 0172 9363 1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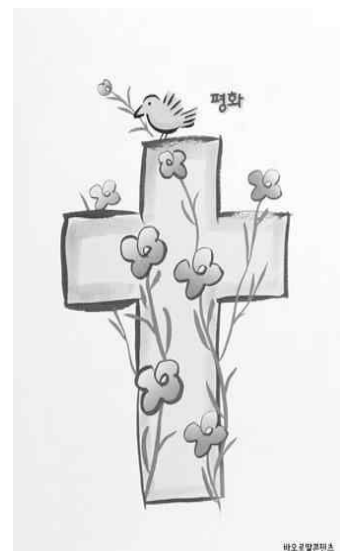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